

통기하는 불교 신사사의 02)745-8503  
 0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상선원 04)734-2680  
 대전 본산시 안산면 송정리

**법어 조대 목산 스님 보림사 회주**

“말 한마디 생각 한 마디가 공부거리입니다.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8경도를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을 행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공부하고 포교해야 해요. 길 바닷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교하다 죽으면 후회하 없어요.”

☞ 지시대 내물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108곳 사찰 자연생태조사

그동안 우리민족은 자연환경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1천년 전 불교사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겼지만 주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면서도 당시 자연생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동안의 의식을 보여준다.



최근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이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 108곳의 전통사찰 기초 생태조사, 분한 자료조사, 관련자 인터뷰, 세계질 모습 등을 담아내는 '한국의 108사찰 자연생태보고서' 간행발사에 나섰다. 두레생태기행이 2월중으로 사찰자연생태연구소를 설립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전통사찰 108곳 자연생태 기록은 최소한 10여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시대 자연생태의 지표가 되는 전통사찰 108곳 주변의 자연환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1-2세기, 또는 그보다 먼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줄 획기적인 봉사라 여겨진다. 두레생태기행이 108곳의 전통사찰을 선택한 것은 산사가 우리시대 대표적 환경지표라는 판단에서다. 전통사찰 주변이 어느 곳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찰이 '산지기'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결과이다. 두레생태기행은 이 같은 역사성도 간과하지 않고 생물학적 측면의 '고발적 생태조사'가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자연생태기록을 담아내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사찰과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찰자연생태연구소 설립을 통해 앞으로 불교의 생명문화연구, 생명법당 설립, 생명강좌 개설, 사찰환경지킴이, 생태사찰만들기 프로그램 연구, 생태토론회 세미나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 712-5813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가정 불단

- 집안에 불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급적 해야 한다 ③ 할 필요 없다 ④ 안 된다
- 가정 불단의 설치를 꺼리는 경우 그 이유는?  
 ① 잘 모실 자신이 없어서 ② 천축이나 손님이 불편해 할까봐 ③ 사찰 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므로 ④ 기타
- 가정에 불단을 설치했거나 개인적으로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설문 참여: 2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6호 9면에 실습니다.

## 외국인 스님 자격 대폭 강화 종단기본교육 이수케

###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 열어 곧 확정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기본교육기관(기초선원)이 지정되고, 외국인 스님들도 앞으로는 내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종단 차원의 교육도 체계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배은)은 1월29일 외국인 승려 교육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기초선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원은 현재 화계사 국제선원, 연동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 무상사 등 3곳을 외국인 기초선원 겸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화계사와 연동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은 지난해 기초선원운영위원회에서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했으나, 종회를 통과한 종단 차원의 기본교육기관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선원이 종회에서 기초선원(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계종에 등록된 외국인 스님(사이·사이니들은 이곳에서 8년의 정규안거에 6년의 교과인간선철교육을 이수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스님과 마찬가지로 강원 등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구족계 수지 자격이 주어졌었다.

## “일산병원 완공후 용퇴”

### 동국학원 녹원 이사장, 감사 문책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이 올해 안으로 이사장직을 내놓는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1월 29일 열린 181회 이사회에서 공금횡령사건과 재단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12월 31일까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이사장 용퇴'를 결의했다. 이와 관련 녹원 스님은 “그만큼 때가 됐다. 잘 해야 마지막 봉사 기회를 쥐고 싶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불사일산병원 개원을 마무리 하겠다”며 이사회의 퇴임 결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장의 즉각 퇴임을 결의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산병원을 원만하게 개



**미항사 동백 “활짝”**

백악간 동백꽃이 해남 미항사에 곱게 피어 봄을 재촉한다. 때마침 내린 눈이 푸른 잎에 소복하여 동백꽃의 단심(丹心)을 더욱 더 여하게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강 스님(미항사 주지)

## “총무원장 선거인단 줄이자”

### 과열막게 교구본사당 1명으로

조계종 공청회 열어

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중앙총회 의원과 본사주지는 이미 해당교구 선거권자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됐음에도 다시 10인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제기되는 문종간의 대립, 서로 다른 지지자들 간의 반목 불신이 다음 선거 때까지 연장되는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은 선거인단 규모의 축소”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2·3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news.com



**봉원사에 등장한 축구공등**

“화이팅! 월드컵 성공과 한국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월드컵을 맞아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영산재 시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가) 경내에 축구공 등(燈)을 달았다. 공을 차고 있는 동자승 캐릭터가 돋보이는 축구공등은 불족위원회와 용호산업이 공동 제작했다. 사진=고명배 기자

## 현대불교 지사모집

- 법집행부의 주역으로 포교사업을 함께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집한다.
- 모집 지역(8개 지역)**
    - 강원북부: 춘천, 횡천, 양구, 화천, 홍천 일원
    - 강원남부: 원주, 정선, 영월, 평강 일원
    -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충주, 청주,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일원
    - 충남: 대천 및 서산, 아산, 당진, 예산, 청양 일원
    - 경북: 영주, 문경, 상주 일원
    - 경남: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일원
    - 전남: 순천, 여수 일원
    - 제주: 천령
  - 모집사업내용**  
지역 내 독립 구역확장 및 광고수수 및 수익사업 전개, 기사 확보 및 취재활동 지원
  - 제출서류 및 기한**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스님, 단제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제출기한: 2002년 2월 23일(수)  
제출방법: 우편(23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 제출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재부  
직통전화: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自然과 人間이 共存하는 World Cup

## 2002 韓日 世界杯 蹴球 成功 開催를 爲한 平和 徒歩 大長征

期間 | 2002. 2. 28 - 6. 30

http://cafe.daum.net/wongong